

초기 성인기 여성의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연예인 숭배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 내재화의 매개효과*

설 경 옥[†] 황 다 솔 홍 성 혜 주 리 나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섭식장애 유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초기 성인기 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이상섭식 행동과 물질주의 그리고 기존 미디어 소비에 비해 적극적이지만 병리적인 미디어 소비 형태인 연예인 숭배와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기 여성의 물질주의 추구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연예인 숭배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가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서울 소재 대학에서 모집한 초기 성인기 여성 60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은 지지되었다. 초기 성인기 여성의 물질주의 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연예인을 병리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성이 커지고, 병리적 연예인 숭배 경향성이 클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을 더 내재화하여 결국 사회문화적으로 인정받는 규범으로서의 외모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통제하려는 시도인 이상섭식행동을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 여성의 이상섭식행동을 사회문화적 변인인 물질주의와 연예인 숭배를 통해 설명하여 이상섭식행동을 여성 개인 내적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하나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접근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물질주의, 연예인 숭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 이상섭식행동, 여성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FR-2015S1A5A8016469).

[†] 교신저자 : 설경옥,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0376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Tel : 02-3277-3918, E-mail : koseol@ewha.ac.kr

물질주의는 돈, 물질의 소유와 획득이 삶의 중심이 되어 물질의 소유로 행복을 추구하고 이를 삶의 성공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Richins & Dawson, 1992). 물질주의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관, 실험, 종단 그리고 이를 종합한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밝혀져 왔다(예: Flouri, 2005; Otero-López & Villardefrancos, 2013; Vansteenkiste, Duriez, Simons, & Soenens, 2006). 물질주의는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낮은 행복도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사회문화적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룬 국내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메타분석(Dittmar, Bond, Hurst, & Kasser, 2014)에 의하면 물질주의는 남성($r = -.09$)보다 여성($r = -.24$)의 심리적 안녕감에 더 큰 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남성과 비교해 여성의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압박감을 더 느끼고 이로 인해 신체불만족이 높아지면서 심리적 안녕감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실제로 물질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 감시, 즉 자신의 몸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신경 쓰는 정도가 더 높았고(Barzoki, Tavakol, & Vahidnia, 2014), 물질주의의 증가는 여성들이 자기 몸을 대상화하여 자신의 가치를 신체적, 성적 매력도로 평가하는 경향성을 높였다(Teng et al., 2016). 이러한 성적 매력의 자본화(capitalization of sexual attractiveness)와 외모에 기반한 자존감은 물질주의와 여성의 자기 대상화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으며, 여성의 자기 대상화는 또 다시 자신의 신체 감시로 이어졌다(Teng et al., 2017). 부정적 신체 이미지, 자기 몸 대상화는 여성의 섭식장애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물질주의를 통해 증가한 부정적 신체 이미지는 섭

식장애로 이어졌다(Guðnadóttir & Garðarsdóttir, 2014). 최근 국내 연구에서도 물질주의는 성인 여성의 외모주의 증가와 정적 관련이 있었으며 외모주의 증가는 자신의 신체를 타인과 비교하는 사회비교 증가와 신체불만족 증가를 통해 이상섭식행동 증가로 이어졌다(설경옥, 박선영, 박지은, 2016).

이상섭식행동은 후기 청소년기 및 초기 성인기 여성에게 가장 빈번히 발생하며(Qian et al., 2013), 2012년 기준 국내 섭식장애 진료인원의 약 80%가 여성이고 이 중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 여성의 이상섭식행동을 이들의 물질주의 추구 경향성으로 설명하고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심리적 기제를 밝히기 위해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기 여성의 가장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인 이상섭식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물질주의 가치 추구 그리고 미디어의 영향중에서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보다 적극적인 미디어 소비 형태인 연예인 숭배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물질주의와 연예인 숭배 그리고 이상섭식행동

이상섭식행동은 임상적 섭식장애로 진단될 만큼의 수준은 아니나 비임상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섭식장애 증상으로(이현정, 이승연, 2016) 체중 증가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으로 인해 과도하게 음식 섭취를 제한하거나,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은 뒤 토하거나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는 행동, 또는 보상 행동 없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행동을 포함하며, 주로 청소년에서

성인기 초반의 여성들에게 나타난다(Qian et al., 2013). 우리나라 초기 성인기 여성의 이상 섭식문제는 심각한 수준인데, 22개국 여대생들의 비만율과 체중감소 노력에 대한 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대생들의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22개국 여대생들 중 가장 낮았지만 체중감소 노력은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ardle, Haase, & Steptoe, 2006). 또한 한국 여성들의 신체불만족과 마름을 미의 기준으로 내재화한 수준은 서구 여성들 보다 훨씬 더 높고(Pike & Dunne, 2015), 중국, 타이완과 같은 동양 여대생과의 비교에서도 우리나라 여대생의 신체불만족과 이상섭식행동은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Jackson, Keel, & Lee, 2006), 한국, 일본, 중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가치와 신체존중감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한국의 대학생이, 남대생보다 여대생이 건강에 비해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성이 더 높았다(김완석, 김정식, 2007; 김완석, 유연재, 2012).

이상섭식행동은 생물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 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설명 가능하다.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유전(Suisman et al., 2012), 시상하부의 기능 부전과 호르몬의 영향(Culbert, Racine, & Klump, 2015)이 있고, 개인내적 요인으로는 높은 신경증이나 낮은 외향성, 높은 부정 정서(Podar, Hannus, & Allik, 1999)등이 알려져 있으며,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신체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 또래와의 애착 그리고 미디어가 있다(김정내, 임성문, 2007; Ashikali & Dittmar, 2012; Frank, 1999). 이러한 요인들 중 텔레비전, 뮤직비디오와 같은 미디어가 급속하게 확산된 1990년대 이후로는 미디어가 이상섭식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문화적 변인으로 연구되

어왔다(Monro & Huon, 2005). 마른 몸의 연예인들은 미디어를 통해 이상적인 미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이를 내재화한 여성들은 마른 몸매의 여성 모델들이 등장하는 미디어에 많이 노출될수록 신체불만족 수준이 증가했으며, 우울한 감정과 스트레스, 수치심 등을 더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Bessenoff, 2006; Jalees & Majid, 2009). 또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에 의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 신체상을 보여주는 모델의 광고에 노출된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를 더 수치스럽게 여기고 외모에 대한 불안감도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자기 몸 대상화가 심한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Monro & Huon, 2005). 저자들의 다른 실험연구에 의하면(Monro & Huon, 2006) 자기 몸 대상화가 심한 여성이 날씬한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에 노출되었을 때 폭식경향성이 더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인터넷의 발달에 뒤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의 발달로 인해 대중의 미디어 소비는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SNS를 통해 미디어의 주체가 되는 연예인들의 개인적 삶을 엿볼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예인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했다는 환상을 갖고 그들을 추종하는 적극적 형태의 미디어 소비인 연예인 숭배 현상이 나타났다(김효진, 임성문, 2015). 공허한 자아(Empty Self) 이론에 의하면(Cushman, 1990)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산업화, 도시화, 개인주의 확산으로 인해 공동체와의 연결, 삶의 의미 등을 잃고 낮은 자존감, 우울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더 겪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소비는 증가하게 된다. 특히 내적인 공허를 경험한 개인은 미디어 소비를 통

해 자신의 자아를 강화하고 긍정 정서를 경험하고자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상적인 삶”을 보여 주는 연예인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몰입하는 병리적 연예인 숭배가 나타나게 된다 (Reeves, Baker, & Truluck, 2012).

연예인 숭배(celebrity worship)는 그 정도에 따라 공상적 연예인 숭배와 병리적 연예인 숭배로 나뉜다. 공상적 연예인 숭배는 좋아하는 연예인에 관한 것을 보고 듣거나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활동을 통해 오락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있고, 심리적 안녕감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Maltby, Day, McCutcheon, Houran, & Ashe, 2006; McCutcheon, Lange, & Houran, 2002). 반면 병리적 연예인 숭배는 연예인에 대한 집착을 보이고 이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특성으로 정의되는데, 연예인의 삶 하나하나에 집착하고 연예인에게 일어난 일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느끼며, 연예인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왜곡된 생각과 연예인과 관련된 물건을 늘 같은 장소에 두어야 하는 강박 증상을 보인다(McCutcheon et al., 2002). 우상으로서, 그리고 삶의 본보기로서 연예인을 좇는 것은 청소년기 자아 발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Giles & Maltby, 2004) 연예인과의 준사회적(para-social) 관계에 과도하게 집착, 몰입하고 강박적 태도를 보이게 되면 이는 병리적 현상이 될 수 있다(Maltby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리적 연예인 숭배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연예인 숭배는 부정적 신체상과 이상섭식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한다(Maltby, Giles, Barber, & McCutcheon, 2005). 국내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 불만족을 통제한 후

에도 연예인 숭배는 남녀 청소년의 이상섭식행동을 유의하고 강력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재웅, 황재원, 2016). 뿐만 아니라 여성 청소년의 경우 텔레비전 시청과 같은 단순 미디어의 노출과 연예인 숭배 모두 이상섭식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는데, 단순 미디어 노출과 연예인 숭배를 함께 고려했을 때 단순 미디어 노출은 이상섭식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지만 연예인 숭배는 유의하게 예측했다. 이는 수동적인 미디어 노출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미디어 소비 형태인 연예인 숭배가 이상섭식행동을 설명하는 더 강력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아직 초기 성인기 여성을 대상으로 연예인 숭배와 이상섭식행동의 직접적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없지만 이 두 변인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선행 연구들은 존재한다. 초기 성인기 여성이 미디어 속 마른 인물에게 더 큰 매력을 느끼거나(Harrison, 1997),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과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여 불일치하다고 느낄수록 이상섭식행동은 증가하였다(Shorter, Brown, Quinton, & Hinton, 2008). 또한 여대생들은 병리적 연예인 숭배가 높을수록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했으며(Swami, Taylor, & Carvalho, 2011), 성형수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였고 성형수술을 더 많이 고려하였다(Swami, 2009). 성형은 신체 불만족과 정적 상관이 있고(Swami, Taylor, & Carvalho, 2009) 신체 불만족은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다(Fung & Yuen, 2003; Legenbauer et al., 2011).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초기 성인기 여성의 연예인 숭배 역시 이들의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할 것이라 예상된다.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매개: 연예인 숭배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물질주의는 이상섭식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하기보다 사회비교, 신체 불만족과 같은 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설경옥 외, 2016; Guðnadóttir & Garðarsdóttir, 2014). 본 연구에서도 물질주의 가치 추구가 적극적인 형태의 미디어 소비자 연예인 숭배와, 이를 통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규범의 내재화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초기 성인기 여성의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현대사회는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물질주의 가치의 학습과 확산이 그 어느 때 보다 용이해졌고, 대중은 배우, 모델, 가수와 같은 연예인이 미디어를 통해 전달하는 아름다움과 부유함의 연합이 곧 행복이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있다(Dittmar, 2007). 이처럼 물질주의 가치는 돈과 물질의 소유 뿐 아니라 아름다운 외모와 같은 외적 가치를 강조하는데(설경옥 외, 2016) 특히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는 연예인에게 몰입하고 자신과 연예인을 과잉 동일시하는 현상인 “연예인 숭배”를 통해(Giles & Maltby, 2004; Green, Griffith, Aruguete, Edman, & McCutcheon, 2014) 보다 적극적으로 물질주의 가치를 학습하고 드러내게 된다(Chan & Prendergast, 2008; Reeves et al., 2012). 한 실험 연구에 의하면 높은 물질주의로 점화된 여대생이 연예인 사진에 노출되었을 때 그 연예인에 대해 더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연예인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물질주의에 점화되지 않은 여대생들은 연예인

사진에 노출되었을 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Ashkali & Dittmar, 2012). 이러한 결과는 물질주의를 추구할수록 물질주의 가치가 지향하는 부유함과 신체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고 있는 연예인에게 더 끌리고 우상시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게 되어 이상섭식행동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디어에 수동적으로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외모에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가 일어날 수 있다(김완석, 유연재, 권지현, 2009). 미디어 노출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 여성의 신체 불만족, 그리고 이상섭식행동에 대한 메타 분석에 의하면, 미디어 노출은 여성의 신체 불만족,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 그리고 이상섭식행동과 중간 크기의 효과크기($r = -.28, -.39, -.30$)를 나타냈다(Grabe, Ward, & Hyde, 2008). 연예인 숭배는 미디어 소비의 일종이나 기존의 미디어 소비에 비해 그 적극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가 더 심화되어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에서는 연예인 숭배가 과거 수동적 미디어 소비 방식이었던 연예인에 대한 단순노출과 신체불만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예인 숭배가 낮은 이들은 연예인 사진에 노출된 조건과 중립적인 사진에 노출된 조건 간에 신체불만족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연예인 숭배가 높은 경우 연예인 사진에 노출된 여성들은 중립적인 사진에 노출된 조건보다 더 큰 신체불만족을 나타냈다(Brown & Tiggemann, 2016). 또한 이들은 외모비교가 연예인 사진에의 노출과 신체불만족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를 종합하여 보면 연예인 숭배 정

도가 높은 여성은 연예인 사진에 노출되었을 때 연예인 숭배가 낮은 여성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연예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예인 숭배 경향성이 높은 여성이 연예인의 외모를 이상적 외모로 내재화한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연예인 사진을 접했을 때 자신의 외모와 더욱 큰 괴리감을 느껴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이 증가한 것이라 해석가능하다. 실제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 수준이 높은 여성은 이상적인 미와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여 이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외모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Heinberg, Thompson, & Stormer, 1995; McKinley & Hyde, 1996). 물질주의, 연예인 숭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에 대한 선행 연구, 그리고 신체불만족이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임을(Jacobi et al., 2011) 고려했을 때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를 연예인 숭배 그리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이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라 예측가능하다.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따라 물질주의나

연예인 숭배가 직접적으로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하기보다 물질주의 가치 추구가 증가하면 물질주의 가치 추구의 정점에 있는 연예인을 더 숭배하게 되고, 연예인 숭배가 증가할수록 연예인이 보여주는 외모를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가 증가하면서 자신의 신체에 더 불만족하게 되며, 연예인의 외모와 더 비슷해지려 하는 개인은 이상섭식행동을 더 많이 보일 것이라 예상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물질주의의 가치는 부유함과 아름다운 외모를 동시에 강조하는데 이는 미디어 속 연예인을 통해 확산되고(Dittmar, 2007; Kasser & Ryan, 2001) 연예인 숭배는 청소년과 성인 초기에 나타는 현상으로 연예인에게 과도하게 몰입하고 집착하는 보다 병리적인고 적극적인 형태의 미디어 소비 형태로써(Ashe & McCutcheon, 2001)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개인은 물질주의 가치가 지향하는 부유함과 신체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고 있는 연예인을 더 숭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예인 숭배 수준이 높을수록 연예인의 외모를 사회문화적 규범으로 내재화 하는 정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Shorter et al., 2008) 이는 이상섭식행동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에 대한 연구 결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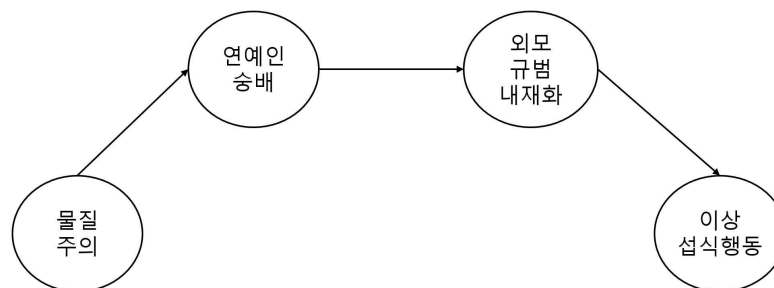


그림 1.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에 관한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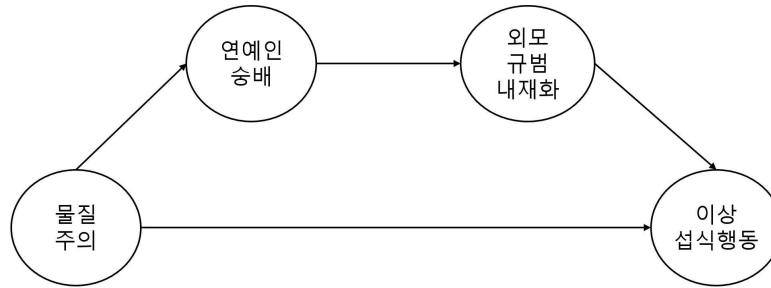


그림 2.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에 관한 경쟁모형

많지 않고, 돈에 대한 집착이 이상섭식행동의 예측의 가장 큰 변수인 신체불만족을 증가시킨다는 선행 연구(Ashikali & Dittmar, 2012) 결과를 고려하여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직접효과를 가정한 경쟁모형(그림 2)을 설정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소재의 대학에 온라인 설문참여를 설명하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참여에 동의한 18세에서 26세 성인 초기 여자 60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평균 연령은 21.26세($SD=2.14$)이었다. 평균 BMI는 20.69($SD=2.64$)로 정상체중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의 직업은 대부분 학생 531명(88.4%)이었다. 대학생은 1학년 196명(36.9%), 2학년 71명(13.4%), 3학년 89명(16.8%), 4학년 105명(19.8%), 5학년 이상 38명(7.2%), 석사를 포함한 기타 32명(6.0%)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 대상(555명, 92.3%)은 미취업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용돈 등을 포함한 한 달 평균 수입은 46.6만원이었고, 취업을 한 경우(36명,

6%), 한 달 평균 수입은 194.4만원 이었다.

측정도구

물질주의

물질주의는 Richins와 Dawson(1992)이 개발하고 유지혜(2017)가 타당화한 물질주의 척도(Material Values Scale)를 사용하였다. 물질주의 척도는 세 가지 하위요인인 성공수단적 물질주의 6문항(예: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취 중 하나다.”), 획득중심적 물질주의 7문항(예: “쇼핑은 내게 큰 기쁨을 준다.”), 행복추구적 물질주의 5문항(예: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살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 때문에 매우 속상하다.”),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물질주의 가치를 더 많이 추구한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물질주의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성공수단 .78, 획득중심 .78, 행복추구 .73으로 나타났다.

연예인 숭배

본 연구에서는 연예인 숭배의 측정을 위해 McCutcheon 외(2002)가 개발한 연예인 숭배척

도(Celebrity Worship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공상적 연예인 숭배 7문항과 병리적 연예인 숭배 10문항(예: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삶 하나하나에 집착한다.”)의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1=매우 동의하지 않음, 5=매우 동의함)로 평가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연예인 숭배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예인 숭배의 병리 문항만 사용하였으며, 병리적 연예인 숭배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병리적 연예인 숭배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문항묶음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및 경험적으로 구인의 일차원성이 가정되어 요인 부하가 큰 문항과 작은 문항을 각 묶음에 배정하여 묶음 간 오차를 균등하게 나누는 방법인 요인 알고리즘의 방법(이지현, 김수영, 2016) 사용하였으며, 측정모형의 간명성과 모형적합도 및 추정치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3개의 문항묶음을 실시하였고, 문항묶음 당 3개, 3개, 4개의 문항이 묶였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

외모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내재화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Heinberg, Thompson과 Stormer(1995)가 개발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를 이상선과 오경자(2003)가 한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2개의 하위요인인 사회문화적 기준에 대한 인식 6문항과 내재화 8문항(예: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날씬한 여자들을 보면 나도 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매우 동의하지 않

음, 5=매우 동의함)로 평가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자신의 가치기준으로 내재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하위 척도 중 내재화만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 문항도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요인 알고리즘의 방법을 사용하여 3문항, 3문항, 2문항으로 구성된 3개의 문항묶음을 실시하였다.

이상섭식행동

이상섭식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Garner와 Garfinkel(1979)이 개발하고 Garner, Olmsted, Bohr와 Garfinkel(1982)이 단축, 재수정한 식이태도검사(Eating Attitude Test-26)를 이민규 외(1998)가 타당화한 한국판 식이태도척도검사-26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요인으로는 절식 13문항(예: “먹은 후에 죄책감이 많이 든다.”), 폭식증과 음식에 대한 몰두 6문항(예: “스스로 멈출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 먹어댄다.”), 섭식 통제 7문항(예: “배가 고파도 먹기를 꺼린다.”)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6점 척도(1=전혀 아니다, 6=항상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상섭식행동을 더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본래 신경성 거식증환자의 식이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나 이후 정상 체중군에서도 식이장애를 의심해볼 수 있는 단계를 잘 감별하여 임상 장면 뿐 아니라 연구용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임상군이 아닌 비임상 일반군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비임상 일반군에게는 섭식 통제가 기능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여 본 연구에서는 섭식 통제 문항은 사용하지 않았다. 실제 본 연구의 상관분석 결과에도 절식 및 폭식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과 정적관계가 있는 것에 반해 섭식 통제는 부적관계가 있었으며, 절식 및 폭식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섭식 통제 문항을 제거한 후에도 문항 간 변별성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사각회전과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구조행렬에서 요인 부하량이 .30보다 적거나 패턴행렬에서 두 요인 이상에 .30이상 부하되는 것은 문항의 변별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최성인, 김창대, 2010) 폭식에서 한 문항을 제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8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이상섭식행동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절식 .91, 폭식 .83으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21.0과 Mplus 7.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 변수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내적 합치도(Cronbach's α)와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기술통계 분석으로 자료의 이상치 및 정규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상관분석을 통해 잠재변인 및 측정 변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개별 문항을 지표로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측정학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실시하였다(이지현, 김수영, 2016). 넷째, 성인 초기 여성의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에서 병리적 연예인 숭배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모형을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가 .90이상이고 SRMR이 .08이하,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가 .10이하이면 괜찮은 합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홍세희, 2000). 자료의 결측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 방식으로 처리하였고, 최종모형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Bootstrapping은 모집단의 분포를 모르는 경우 표본을 반복 추출하여 경험적인 분포를 얻어 모집단의 분포를 추정하며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유의한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한다(Shrout & Bolger, 2002).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그리고 변인 간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의 왜도의 절댓값은 2를 첨도의 절댓값은 7을 넘지 않아 다변량 정상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주요 잠재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물질주의는 병리적 연예인 숭배($r=.15, p<.01$)와 작은 크기의 정적 상관을 보였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r=.36, p<.01$)와 중간 크기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이상섭식행동($r=.19, p<.01$)과는 작은 크기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병리적 연예인 숭배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r=.13, p<.01$) 그리고 이상섭식행동($r=.11, p<.01$)과

표 1. 주요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상관계수($N = 601$)

	1	1-1	1-2	1-3	2	2-1	2-2	2-3	3	3-1	3-2	3-3	4	4-1	4-2
1. 물결주의	1														
1-1. 성공수단	.88**	1													
1-2. 획득중심	.86**	.62**	1												
1-3. 행복추구	.78**	.58**	.47**	1											
2. 연예인 숭배	.15**	.12**	.07	.20**	1										
2-1. 병리1	.16**	.14**	.08	.20**	.96**	1									
2-2. 병리2	.13**	.10*	.06	.20**	.94**	.86**	1								
2-3. 병리3	.12**	.10*	.05	.17**	.93**	.86**	.82**	1							
3. 외모 규범 내재화	.36**	.36**	.26**	.31**	.13**	.14**	.11**	.11**	1						
3-1. 내재화1	.30**	.31**	.22**	.23**	.05	.06	.04	.03	.86**	1					
3-2. 내재화2	.27**	.25**	.20**	.25**	.16**	.17**	.14**	.15**	.90**	.67**	1				
3-3. 내재화3	.39**	.40**	.27**	.33**	.10*	.12**	.08	.09*	.88**	.68**	.65**	1			
4. 이상성식행동	.19**	.20**	.13**	.16**	.11**	.12**	.08	.11**	.51**	.41**	.54**	.38**	1		
4-1. 절식	.16**	.16**	.11**	.13**	.07	.08	.05	.07	.51**	.40**	.55**	.37**	.96**	1	
4-2. 폭식	.22**	.22**	.17**	.17**	.14**	.15**	.10**	.15**	.35**	.29**	.33**	.30**	.70**	.48**	1
평균	3.14	3.16	3.17	3.05	1.76	1.68	1.93	1.68	3.36	3.50	3.12	3.51	2.58	2.94	2.18
왜도	-0.38	-0.46	-0.23	-0.17	1.03	1.18	0.85	1.25	-0.38	-0.44	-0.25	-0.55	0.51	0.36	0.81
첨도	0.09	0.20	-0.12	-0.09	0.31	0.71	-0.18	1.16	-0.00	-0.20	-0.24	0.30	-0.01	-0.26	.50

* $p < .05$, ** $p < .01$

모두 작은 크기의 정적 상관을 보였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는 이상섭식행동($r=.51, p<.01$)과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에서 연예인 숭배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매개효과 검증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에 관한 측정모형의 검증 결과 CFI는 .971, SRMR은 .042 그리고 RMSEA는 .067(90% 신뢰구간=.055-.079)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를 병리적 연예인 숭배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가 매개하는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χ^2 는 222.958, 자유도(df)는 41, CFI는 .949, SRMR은 .106, RMSEA는 .086(90% 신뢰구간=.075-.097)로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Hu와 Bentler (1999)의 연구에 따라 SRMR값이 일반적으로 .08이하인 경우가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지만 표본의 크기가 500 이상이고, RMSEA의 크기

와 함께 고려했을 때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물질주의가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설명력을 추가한 경쟁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χ^2 는 222.957, 자유도(df)는 40, CFI는 .949, SRMR은 .105, RMSEA는 .087(90% 신뢰구간=.076-.099)로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χ^2 차이 검증결과, 경쟁모형이 연구모형에 비해 자유도가 1만큼 감소하였지만 감소한 χ^2 값이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 하였다($\Delta\chi^2$ (1, $N=601$), 0.001, $p>.05$).

그림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모두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물질주의와 연예인 숭배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17($p<.001$)이었으며, 병리적 연예인 숭배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15($p<.01$)이었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와 이상섭식행동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65($p<.001$)이었다.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병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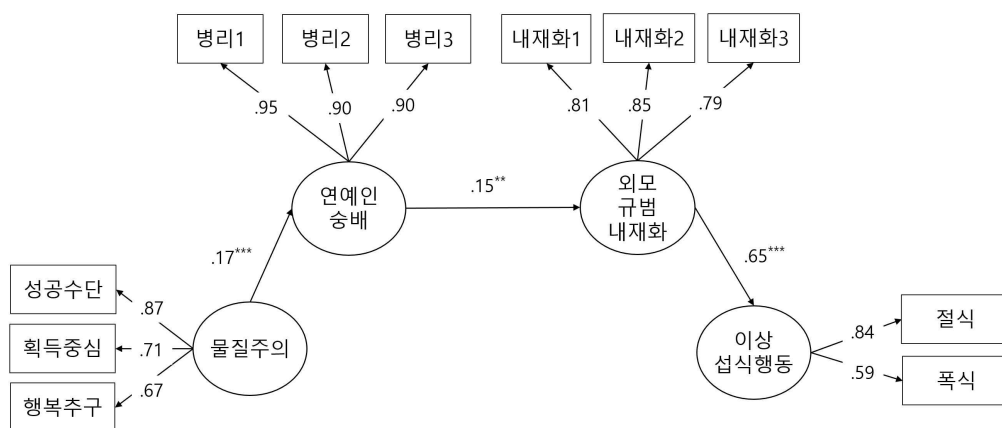


그림 3.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에 관한 연구모형(표준화된 회귀계수)

* $p<.05$, ** $p<.01$, *** $p<.001$

표 2. 부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분석 결과

매개경로	Bootstrap 추정치		95%신뢰구간 Bias-corrected	
	비표준화 계수	SE	하한	상한
물질주의 → 연예인 숭배 → 외모 규범 내재화 → 이상섭식행동	0.021*	.010	.006	.048

* $p < .05$

적 연예인 숭배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 확인하기 위해 5,000개의 표본을 원자료 ($N=601$)로부터 추출하여 부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하였다.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병리적 연예인 숭배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가 매개하는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의 비표준화계수는 .021, 95% Bias-Corrected CI=[.006, .048]이었고 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논 의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발전과 문화 지체 현상으로 인해 나타난 높은 물질주의는 다양한 대중매체 발달을 통해 계속 확산되고 있다(구재선, 서은국, 2015). 물질주의와 이와 관련이 깊은 미디어, 특히 미디어의 적극적이지만 병리적 소비 형태인 연예인 숭배는 우리 사회의 심리적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사회문화적 변인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는 적다.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 여성의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를 연예인 숭배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가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연구가설은 지지되었고 결과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물질주의가 연예인 숭배를 거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을 통해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허한 자아 이론(Cushman, 1990)에서 예측하듯 물질주의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공허함은 더욱 증가하게 되고 ‘공허한 자아’를 채우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병리적으로 연예인을 소비하는 행위가 증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숭배하는 연예인의 외모를 사회문화적 미의 규범으로 여겨 자신의 기준으로 내재화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자신의 신체를 사회에서 요구하는 미의 기준에 맞추려 노력하게 되면서 이상섭식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선행 연구에서도 물질주의 가치의 증가는 병리적 연예인 숭배 경향성의 증가로 이어졌다(Chan & Prendergast, 2008; Green et al., 2014; Reeves et al., 2012). 연예인 숭배가 증가하게 되면 여성의 경우 특히 연예인을 통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을 자신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연예인 숭배를 더 할수록 여성은 자신의 신체상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ltby et al., 2005). 이는 “마르고, 젊고”와 같이 규격화된 외모를 보이는 연예인들을 자주 접하고 그들을 숭배할 경우 여성은 그 연예인들을 사회가

인정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미의 기준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신체상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을 내재화한 여성들은 현재 자신의 몸에 만족하기보다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상적인 외모에 목표를 두고 이를 추구하게 되면서 이상섭식행동을 더 많이 보이게 된다(Tompson & Stice, 2001). 만 18-27세 사이의 초기 성인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신의 몸과 자신이 선호하는 연예인의 몸 간에 차이가 크다고 여길 경우 이상섭식행동이 증가하였고(Shorter et al., 2008), 신체불만족이 높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3년 간 진단적 면접을 실시한 종단 연구 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는 폭식증이나 구토와 같은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나기도 했다(Stice, Gau, Rohde, & Shaw, 2017).

학술적으로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 여성의 이상섭식행동을 설명하는 주요한 이론인 사회문화적 이론(Boskind-White & White, 1986)에서 언급한 미디어의 영향을, 우리나라에 만연한 물질주의 그리고 과거 수동적 미디어 환경에서 현재 능동적이고 양방향적으로 바뀐 미디어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연예인 숭배 현상의 관계를 통해 밝힌 점에 의의가 있다. 섭식장애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론에 의하면 수동적으로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여성은 자신의 신체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자신의 몸을 하나의 상품으로 대상화하여 사회문화적으로 제시하는 미의 규준에 도달하고자 비정상적으로 노력하는 이상섭식행동을 더 많이 보이게 된다(López-Guimerà, Levine, Sánchez-Carracedo, & Fauquet, 2010; Monro & Huon, 200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디어의 영향에 더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물질주의 가치 추

구 그리고 미디어의 새롭고 더 적극적인 소비 형태인 미디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연예인에 집착하는 연예인 숭배 현상으로 이상섭식행동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론을 확장한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는 실험과 연구 등을 통해 ‘마른 몸’과 같은 이상적 미의 기준을 보여주는 미디어가 이상섭식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Monro & Huon, 2005; Moriarty & Harrison, 2008). 그러나 연예인 숭배는 미디어에 수동적으로 노출 된 것이 아닌 SNS를 통한 자기 개방과 같은 적극적이고 양방향적인 행동을 포함한다는 점에서(Chung & Cho, 2017) 기존의 미디어 노출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선행 연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연예인 숭배는 단순 미디어 노출보다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이지만 병리적 형태의 미디어 소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예인 숭배와 정신 건강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미디어의 적극적 소비 형태인 연예인 숭배와 이상섭식행동과의 관계는 물론 연예인 숭배를 예측하는 물질주의 가치 추구의 영향을 밝힌 의의가 있다. 또한 국외 선행 연구에 의하면 연예인 숭배의 효과는 초기 성인기 여성들에게도 나타났으나(Brown & Tiggemann, 2016) 국내에서는 연예인 숭배를 청소년들의 하위문화로 보는 경향이 강하여 중학생, 고등학생과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김효진, 임성문, 2015; 심재웅, 황재원, 2016). 본 논문은 기존 연예인 숭배 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던 대상인 초기 성인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확장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심리상담과 같은 실제적 적용에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부정적 신체

이미지와 이로 인한 이상섭식행동은 초기 성인기 여성이 호소하는 주요 정신건강 문제이다(Allen, Byrne, Oddy, & Crosby, 2013). 본 연구는 이상섭식행동을 설명하는 사회문화적 변인으로 물질주의 가치와 최근 나타나는 미디어의 적극적 소비행동인 연예인 숭배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 가치는 여성이 자신의 외모를 결혼이나 직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하는 하나의 “재화”로 인식하게 하여 마른 몸과 같은 규격화된 외모를 갖추어야 하는 압박감(Dittmar et al., 2014)을 더 쉽게 느끼게 하고 이상섭식행동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자기대상화(Teng et al., 2016)의 동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담자는 여성 내담자가 갖는 가치 체계 탐색을 통해 물질주의나 외모주의와 같은 외적가치가 여성이 자신의 신체상에 갖는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찰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섭식장애가 내담자의 개인적 문제만이 아닌 물질이나 규격화된 외모를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체계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통찰을 높일 수 있다. 연예인 숭배를 통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을 내재화한 경우 이러한 규범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 않으므로 외모에 대한 내담자의 규준이 미디어와 같은 외적 체계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임을 지각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인 규범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적인 기준이나 내담자가 개인내적으로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고 있음에 대한 내담자의 인식 확장을 도울 수도 있다. 끝으로 상담자는, ‘공허한 자아’ 이론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내담자가 연예인을 숭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자신의 불안정한 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해 외재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경향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함

께 탐색할 수 있고, 불안정한 정체성으로 인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연예인 숭배나 이상섭식행동과 같은 부적응적 행동이 아닌 보다 적응적 대안행동을 모색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이상섭식행동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초기 성인기 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상정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발달 단계에서 물질주의와 연예인 숭배 그리고 이상섭식행동과의 관계는 물론, 물질주의 그리고 연예인 숭배가 이상섭식행동 외에 다른 정신건강 문제 및 심리적 안녕감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년여성의 물질주의와 연예인 숭배는 이상섭식행동이 아닌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다른 정신건강 문제를 예측할 수 있고 (Otero-López & Villardefrancos, 2013), 중년여성의 물질주의는 연예인 숭배가 아닌 노화에 의한 신체불만족과 같은 다른 심리적 기제를 통해 이상섭식행동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Midlarsky & Nitzberg, 2008). 또한 초기 성인기의 물질주의 추구는 연예인 숭배뿐 아니라 이 시기의 주요 발달 과업인 학업, 직업 그리고 관계적 성취(Shiner & Masten, 2002)와 더 큰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성차 역시 물질주의와 연예인 숭배 및 정신건강 변인관계를 다르게 하는 변인일 수 있다. 물질주의와 연예인 숭배에서 성차의 조절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 없지만 물질주의와 연예인 관련 미디어 소비의 관계를 성별이 조절한다는 연구가 존재한다(Lewallen, Miller, & Behm-Morawitz, 2016). 남녀 모두 연예인 숭배를 통해 이상적인 신체상을 내재화하였으나 이로 인한 신체 관리 행동은 남녀가 다르게 나타났고(Guðnadóttir & Garðarsdóttir,

2014), 연예인 숭배와 성형 수용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연예인 숭배가 높은 여성의 성형 수용은 유의하게 높은 반면, 남성에게는 유의하지 않았다(Swami et al., 2009). 후속 연구에서는 남성의 경우 물질주의 추구와 연예인 숭배가 이들의 신체상 뿐 아니라 신체 관리 행동, 전반적인 정신 건강, 자기 유능감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연구해 볼 수 있다 (Flouri, 2005).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예인 숭배를 병리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초기 성인기 여성의 이상 섭식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연예인 숭배는 병리적인 면뿐 아니라 사회적, 오락적 측면의 공상적 연예인 숭배도 존재한다(McCutcheon et al., 2002). 후속 연구에서는 병리적 연예인 숭배뿐 아니라 공상적 연예인 숭배와 물질주의와의 관련성, 그리고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 모형의 방향성을 확신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물질주의가 연예인 숭배를 예측하고 연예인 숭배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로 이어짐을 발견하였지만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을 더 쉽게 내재화 할 수 있고, 그 규범에 가장 부합하고 대표성을 띠는 연예인을 숭배하게 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연예인을 우상시 할수록 자신의 몸, 외모, 신체와의 괴리감은 더 커지게 되고 이러한 괴리감은 신체 불만족으로 이어져 이상섭식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를 통해 물질주의를 추구할수록 증가하는 연예인 숭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 그리고 이상 섭식행동의 방향성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

다. 끝으로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의 물질주의와 연예인 숭배에 대한 첫 번째 연구로서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신뢰하기 위해서는 반복 연구를 통해 물질주의와 연예인 숭배의 관계 그리고 연예인 숭배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가 본 연구와 일치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초고속 산업화의 결과로 문화지체 현상처럼 나타난 물질주의는 한국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그동안 연구가 부족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디어 소비 환경이 과거 수동적이고 일방향적인 소비 형태에서 능동적이고 양방향적인 것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난 연예인 숭배 현상 역시 청소년을 대상으로만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 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상섭식행동을 사회문화적 변인인 물질주의와 연예인 숭배를 통해 설명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초기 성인기 여성의 이상섭식행동을 여성 개인 내적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하나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 구재선, 서은국 (2015). 왜 한국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보다 불행한가? 상대적 외적 가치, 사회적 지원, 사회비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4), 63-8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 HIRA-Quickstat, 2013-02.
- 김완식, 김정식 (2007). 동아시아 여대생들의 신체가치관과 신체존중감. *한국심리학회*

- 지: 문화 및 사회문제, 13(4), 113-134.
- 김완석, 유연재, 권지현 (2009). 신체가치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0(3), 581-600.
- 김완석, 유연재 (2012). 한국 대학생의 신체이미지: 일본, 중국과의 비교를 토대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8(2), 301-327.
- 김정내, 임성문 (2007). 부모 및 또래애착과 대학생의 섭식장애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4(5), 315-344.
- 김효진, 임성문 (2015). 여자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2(8), 25-52.
- 설경옥, 박선영, 박지은 (2016). 성인기 초기 여성의 물질주의, 외모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사회비교와 신체불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3), 875-896.
- 심재웅, 황재원 (2016). 청소년의 연예인에 대한 관심과 섭식장애. 한국언론학보, 60(4), 328-349.
- 유지혜 (2017). 한국판 물질주의 척도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규, 이영호, 박세현, 손창호, 정영조, 홍성국, 이병관, 장필립, 윤애리 (1998). 한국판 식사태도검사-26(The 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s Test-26: KEAT-26) 표준화 연구 I: 신뢰도 및 요인분석. 한국정신지체의학, 6(2), 155-175.
- 이상선, 오경자 (2003).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설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13-926.
- 이지현, 김수영 (2016). 문항묶음: 원리의 이해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327-353.
- 이현정, 이승연 (2016). 여대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1), 83-99.
- 최성인, 김창대 (2010). 상담에 대한 태도 척도 한국판(K-BEACS) 타당화 연구: 상담서비스에 대한 신념과 평가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1(1), 169-195.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8.
- Allen, K. L., Byrne, S. M., Oddy, W. H., & Crosby, R. D. (2013). DSM-IV-TR and DSM-5 eating disorders in adolescents: Prevalence, stability, and psychosocial correlates in a population-based sample of male and female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2*(3), 720-732.
- Ashe, D. D., & McCutcheon, L. E. (2001). Shyness, loneliness, and attitude toward celebrities. *Current Research in Social Psychology, 4*(9), 124-132.
- Ashikali, E. M., & Dittmar, H. (2012). The effect of priming materialism on women's responses to thin-ideal media.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1*(4), 514-533.
- Barzoki, M. H., Tavakol, M., & Vahidnia, A. (2014). Effects of sexual objectification on conspicuous consumption and materialism. *Sexuality Research and Social Policy, 11*(2), 153-162.
- Bessenoff, G. R. (2006). Can the media affect us? Social comparison, self discrepancy, and the thin ideal.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0*(3),

- 239-251.
- Boskind-White, M., & White, W. C. (1986). Bulimarexia: A historical-sociocultural perspective, In K. D. Brownell & J. P. Foreyt (Eds.), *Handbook of eating disorders: Physiology, psychology, and treatment of obesity, anorexia, and bulimia* (pp. 353-366). New York, NY: Basic Books.
- Brown, J., & Tiggemann, M. (2016). Attractive celebrity and peer images on Instagram: Effect on women's mood and body image. *Body Image, 19*, 37-43.
- Chan, K., & Prendergast, G. P. (2008). Social comparison, imitation of celebrity models and materialism among Chinese youth. *International Journal of Advertising, 27*(5), 799-826.
- Chung, S., & Cho, H. (2017). Fostering parasocial relationships with celebrities on social media: Implications for celebrity endorsement. *Psychology & Marketing, 34*(4), 481-495.
- Culbert, K. M., Racine, S. E., & Klump, K. L. (2015). Research review: What we have learned about the causes of eating disorders-a synthesis of sociocultural, psychological, and biological researc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6*(11), 1141-1164.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Cushman, P. (1990). Why the self is empty: Toward a historically situated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45*(5), 599-611.
- Dittmar, H., Bond, R., Hurst, M., & Kasser, T.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personal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5), 879-924.
- Dittmar, H. (2007). The cost of consumers and the 'cage within': The impact of the material 'good life' and 'body perfect' ideals on individuals' identity and well-being. *Psychological Inquiry, 18*(1), 23-31.
- Frank, M. (1999). Raising daughters to resist negative cultural message about body image. *Women and Therapy, 22*(4), 69-88.
- Flouri, E. (2005). Adult materialism/postmaterialism and later mental health: The role of self-efficacy. *Social Indicators Research, 73*(1), 1-18.
- Fung, M. S., & Yuen, M. (2003). Body image and eating attitudes among adolescent Chinese girls in Hong Kong. *Perceptual and Motor Skills, 96*(1), 57-66.
- Garner, D. M., & Garfinkel, P. E. (1979). The eating attitudes test: An index of the symptoms of anorexia nervosa. *Psychological Medicine, 9*(2), 273-279.
- Garner, D. M., Olmsted, M. P., Bohr, Y., & Garfinkel, P. E. (1982). The eating attitudes test: Psychometric features and clinic correlates. *Psychological Medicine, 12*(4), 871-878.
- Giles, D. C., & Maltby, J. (2004). The role of media figures in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 between autonomy, attachment, and interest in celebriti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4), 813-822.
- Grabe, S., Ward, L. M., & Hyde, J. S. (2008).

- The role of the media in body image concerns among women: A meta-analysis of experimental and correlation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34(3), 460-476.
- Green, T., Griffith, J., Aruguete, M. S., Edman, J., & McCutcheon, L. E. (2014). Materialism and the tendency to worship celebrities. *North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16(1), 33-42.
- Guðnadóttir, U., & Garðarsdóttir, R. B. (2014). The influence of materialism and ideal body internalization on body dissatisfaction and body shaping behaviors of young men and women: Support for the consumer culture impact model.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5(2), 151-159.
- Harrison, K. (1997). Does interpersonal attraction to thin media personalities promote eating disorder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1(4), 478-500.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mer, S.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1), 81-89.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Jackson, S. C., Keel, P. K., & Lee, Y. H. (2006). Trans-cultural comparison of disordered eating in Korean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5(6), 498-502.
- Jacobi, C., Fittig, E., Bryson, S. W., Wilfley, D., Kraemer, H. C., & Taylor, C. B. (2011). Who is really at risk? Identifying risk factors for subthreshold and full syndrome eating disorders in a high-risk sample. *Psychological Medicine*, 41(9), 1939-1949.
- Jalees, T., & Majid, H. (2009). Impact of 'Ideal Models' being portrayed by media on young females. *Paradigm*, 13(1), 11-19.
- Kasser, T., & Ryan, R. M. (2001).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Optimal functioning and the relative attainment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In P. Schmuck & K. M. Sheldon (Eds.), *Lifegoals and well-being: Towards a positive psychology of human striving* (pp. 116-131). Ashland, OH: Hogrefe & Huber.
- Legenbauer, T., Vocks, S., Betz, S., Báguena Puigcerver, M. J., Benecke, A., Troje, N. F., & Rüddel, H. (2011). Differences in the nature of body image disturbances between female obese individuals with versus without a comorbid binge eating disorder: An exploratory study including static and dynamic aspects of body image. *Behavior Modification*, 35(2), 162-186.
- Lewallen, J., Miller, B., & Behm-Morawitz, E. (2016). Lifestyles of the rich and famous: Celebrity media diet and the cultivation of emerging adults' materialism.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19(3), 253-274.
- López-Guimerà, G., Levine, M. P., Sánchez-Carracedo, D., & Fauquet, J. (2010). Influence of mass media on body image and eating disordered attitudes and behaviors in females: A review of effects and processes. *Media Psychology*, 13(4), 387-416.
- Maltby, J., Giles, D. C., Barber, L., & McCutcheon, L. E. (2005). Intense personal

- celebrity worship and body image: Evidence of a link among female adolescents.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0(1), 17-32.
- Maltby, J., Day, L., McCutcheon, L. E., Houran, J., & Ashe, D. (2006). Extreme celebrity worship, fantasy proneness and dissociation: Developing the measurement and understanding of celebrity worship within a clinical personality contex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2), 273-283.
- McCutcheon, L. E., Lange, R., & Houran, J. (2002).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celebrity worship.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3(1), 67-87.
- McKinley, N. M., & Hyde, J. S. (1996).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2), 181-215.
- Midlarsky, E., & Nitzburg, G. (2008). Eating disorders in middle-aged women. *Th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135(4), 393-408.
- Monro, F., & Huon, G. (2005). Media portrayed idealized images, body shame, and appearance anxiety.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3(1), 85-90.
- Monro, F., & Huon, G. (2006). Media-portrayed idealized images, self-objectification, and eating behavior. *Eating Behaviors*, 7(4), 375-383.
- Moriarty, C. M., & Harrison, K. (2008). Television exposure and disordered eating among children: A longitudinal panel study. *Journal of Communication*, 58(2), 361-381.
- Otero-López, J. M., & Villardefrancos, E. (2013). Materialism and addictive buying in women: The mediating role of anxiety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Reports*, 113(1), 328-344.
- Pike, K. M., & Dunne, P. E. (2015). The rise of eating disorders in Asia: A review.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1), 1-14.
- Podar, I., Hannus, A., & Allik, J. (1999). Personality and affectivity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eating disorders: A comparison of eating disordered, weight-preoccupied, and normal samp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3(1), 133-147.
- Qian, J., Hu, Q., Wan, Y., Li, T., Wu, M., Ren, Z., & Yu, D. (2013). Prevalence of eating disorders in the general population: A systematic review. *Shanghai Archives of Psychiatry*, 25(4), 212-223.
- Reeves, R. A., Baker, G. A., & Truluck, C. S. (2012). Celebrity worship, materialism, compulsive buying, and the empty self. *Psychology and Marketing*, 29(9), 674-679.
- Richins, M. L., & Dawson, S. A. (1992).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3), 303-316.
- Shiner, R. L., & Masten, A. S. (2002). Transactional links between personality and adaptation from childhood through adulthood.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6(6), 580-588.
- Shorter, L., Brown, S. L., Quinton, S. J., & Hinton, L. (2008). Relationships between body shape discrepancies with favored celebrities and disordered eating in young wome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8(5), 1364-1377.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tice, E., Gau, J. M., Rohde, P., & Shaw, H. (2017). Risk factors that predict future onset of each DSM-5 eating disorder: Predictive specificity in high-risk adolescent femal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6(1), 38-51.
- Suisman, J. L., O'Connor, S. M., Sperry, S., Thompson, J. K., Keel, P. K., Burt, S. A., & Klump, K. L. (2012).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thin ideal internal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43(8), 942-948.
- Swami, V. (2009). Body appreciation, media influence, and weight status predict consideration of cosmetic surgery among female undergraduates. *Body Image*, 6(4), 315-317.
- Swami, V., Taylor, R., & Carvalho, C. (2009).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and celebrity worship: Evidence of associations among female undergraduat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8), 869-872.
- Swami, V., Taylor, R., & Carvalho, C. (2011). Body dissatisfaction assessed by the photographic figure rating scale is associated with sociocultural, personality, and media influence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2(1), 57-63.
- Teng, F., Poon, K. T., Zhang, H., Chen, Z., Yang, Y., & Wang, X. (2016). Situational cuing of materialism triggers self-objectification among women (but not men): The moderating role of self-concept clar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7, 220-228.
- Teng, F., You, J., Poon, K. T., Yang, Y., You, J., & Jiang, Y. (2017). Materialism predicts young Chinese women's self-objectification and body surveillance. *Sex Roles*, 76(7-8), 448-459.
- Tompson, J. K., & Stice, E. (2001). Thin-Ideal internalization: Mounting evidence for a new risk factor for body-image disturbance and eating patholog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5), 181-183.
- Vansteenkiste, M., Duriez, B., Simons, J., & Soenens, B. (2006). Materialistic values and well being among business students: Further evidence of their detrimental effect.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6(12), 2892-2908.
- Wardle, J., Haase, A. M., & Steptoe, A. (2006). Body image and weight control in young adults: International comparisons in university students from 22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30(4), 644-651.

논문 투고일 : 2017. 08. 04

1 차 심사일 : 2017. 08. 08

게재 확정일 : 2017. 11. 06

Materialism and Disordered Eating Symptoms among Young Adult Women: Celebrity Worship and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as Mediators

Kyoung Ok Seol

Dasol Hwang

Seong Hye Hong

Lina Ju

Ewha Woma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ed to understand young adult women's disordered eating symptoms with materialism and pathological celebrity worship. Specifically, we hypothesized that pathological celebrity worship and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would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disordered eating symptoms among young adult women. A total of 601 female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s hypothesized, we found that materialism predicted pathological celebrity worship and increased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which in turn, led to a higher level of disordered eating symptoms. Our findings suggest that young adult women's disordered eating behaviors should be understood as a sociocultural phenomenon rather than as an individual woman's personal issue.

Key words : materialism, celebrity worship,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disordered eating symptom, female